

차별화된 품질과 디자인의 글로벌 프리미엄 교복 브랜드

형지엘리트의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는 올해로 52주년을 맞았다. 엘리트는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한 품질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겸비한 교복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학생복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주 소비층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다.

친환경 교복 선보이며 업계 선도하는 리딩 기업

엘리트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학생복 시장을 이끄는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소비자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엘리트는 학부모 교복 품질 평가단 ‘엘리트맘’, 학생 서포터즈 ‘엘친’은 물론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소비자의 의견을 파악한 뒤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활용해 실용성을 강조한 교복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2018년 교복업계 최초로 ‘인비스타 쿨맥스’ 원단을 사용한 하복 셔츠와 블라우스를 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인비스타 쿨맥스 원단은 흡한속건 기능의 대표 소재로, 땀과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켜 더운 여름철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또한, 소매 길이 조절이 가능한 ‘매직소매’, 일반 셔츠 대비 오염이 덜 타고 쉽게 제거되는 ‘나노 오염방지 셔츠’, 오염되기 쉬운 카라만 떼어내 따로 세탁 가능한 ‘카라 탈부착 셔츠’ 등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영 화두로 떠오른 친환경 트렌드에 동참하며 주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지난 4월 교복업계 최초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를 사용한 하복 바지를 출시했다. 사방 스트레치 소재로 활동성이 뛰어난 ‘쿨스판’의 기능은 살리고,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 ‘리젠(regen®)’을 적용해 높은 품질과 선명한 색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프리미엄 교복 브랜드

엘리트는 국내를 넘어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학생복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국 패션기업 빠오시니아오 그룹의 계열사 ‘보노(BONO)’와 손잡고 합자법인 ‘상해엘리트’를 설립, 프리미엄 교복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고품질 교복에 대한 수요 증가세에 발맞춰 현지 명문 교육그룹 및 지역 교육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 영업을 전개하고, 직영점과 별도로 대리상을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등 영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중국 내 주요 교복 전시회 및 패션쇼에 참가해 ‘K-교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 징둥닷컴 등에 전용몰을 개설해 판매 채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주)형지엘리트
대표이사

최병오

엘리트가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학생복 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에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2년간 엘리트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들 덕분에 이와 같은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세워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학생복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